

#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 ■ 본문

막 4:35-41

## ■ 시작 찬송가

25, 27, 28장  
(통 25, 27, 28장)

## ■ 헌금 찬송가

412, 413, 415장  
(통 469, 470, 471장)

## ▶ 평안

### 1. 평안의 종류

- 1) 국가적 평화 (왕상 4:24)
- 2) 영적 평안 (롬 5:1)
- 3) 개인적 평안 (눅 8:48)
- 4) 가정적 평안 (고전 7:15)

### 2. 평안의 근원

- 1) 하나님 (빌 4:7)
- 2) 그리스도 (요 14:17)
- 3) 성령 (엡 4:3)
- 4) 화평한 자 (시 37:37)

##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선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선교사입니다. 때론 선교 중에 왼쪽 어깨를 사자에게 물려 어깨가 으스스하며, 걱정과 두려운 선교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프리카 정글 같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의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단 10:19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

본문에는 밤이 왔을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고 또 친히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삶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풍랑을 만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로다**

## 믿음으로 얻어진 참된 평안

예수님께서서는 저편으로 이끌고 유대 반대되는 땅,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은 결코 말씀을 전하기에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론 건너갈 때 광풍과 같은 어려운 도전과 환난을 경험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편한 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삶속에 어려움이 있는 저편으로 건너가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편으로 간다는 것이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광풍을 만난 삶에서 성도는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겔 34:23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평안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그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또는 잘못된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러한 이유로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살롬, 바로 진정한 평안과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막 4:40-41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롬은 원래는 전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살롬은 온전하다, 완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롬의 상태는 전쟁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입니다. 우리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해 지는 것이 살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로 온전함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샬롬: 예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때로는 물질이 있으면 평안할 텐데, 건강이 있으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채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그들의 삶이 무너졌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 평안, 온전케 하는 중요한 요소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단순히 전쟁을 멈추게 하신 예수님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동시에 두렵고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속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샬롬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 믿음으로 온전케 됩니다

우리들 중에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완벽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완벽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이 부분이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집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고, 차가 없으니까 평안이 없고, 아직 자녀들이 결혼을 못해서 평안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을 주시는데 그 부족함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샬롬은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약 2:22**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이 제자들의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말씀 하십니다. 우리도 두려울 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두려움을 주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는 바로 우리가 험한 것을, 무거운 짐을, 근심을, 걱정을, 두려움을, 수많은 것을 갖고 갔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에 있습니다.

**시 55: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예수님의 평안을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를 '맡기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성도는 세상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가정과 모든 삶에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샬롬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의 사람에게 평안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평안과 샬롬을 세상에 전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 37:5-6**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 ▶ 광풍

### 1. 광풍의 비유적 표현

- 1)하나님의 격노  
(렘 23:19)
- 2)신적 심판  
(겔 1:4)
- 3)하나님의 능력  
(나 1:3)

## ▶ 맡기다

### 1. 성도가 하나님께 맡길 것

- 1)자신  
(시 22:10)
- 2)앞길  
(시 37:5)
- 3)짐  
(시 55:22)
- 4)행사  
(잠 16:3)
- 5)염려  
(벧전 5:7)

## 오늘의 한마디

## 하나님의 샬롬으로 온 땅을 채우는 성도 됩시다!

### 공동기도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